

외국 18년

자네 지금 몇살인가? 꽤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예, 저는요 한국나이로 19살이고요, 만으로는 생일이 73년 5월15일이니까 18세가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 몸무게가 얼마 정도되나?

그런걸 왜 물어보세요?

다름이 아니고 자네가 좀 유별나게 보여서 그래-

태어날 때에는 16kg(160명)의 우량아였습니다. 그 후 몸무게가 계속 늘어 3살때에는 60kg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금씩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35kg정도 나갈겁니다.

체중이 계속 준다고 하니 무슨 병이 있는 모양인데 병원에는 가 보았나?

몇 군대서 진찰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병을 이기려는 환자의 의지입니다.

그럼 자네 고향은 어딘가?

옛날 한때는 고향에서 꽤나 날렸지요. 제가 빠지면 안될 정도로요. 지금의 환경이나 산업안전 만큼이나 바쁘고 인기가 좋았어요. 저의 독무대였어요.

아니 고향이 어디냐니까 딴 소리는...

아아, 고향요? 고향이 들입니다.

고향이 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

원래는 방재로 태어났는데 그 뒤 보험에서 살다보니 고향이 들이 되었습니다. 고향이 들이다 보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요즈음 같은 전문시대에 두곳을 왕래하다 보니 어느 한쪽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면 고향을 "방재와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고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들이면 더 좋을테니 말아야...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첫째. 큰 그릇에 적은 물을 담을 수는 있어도 작은 그릇에 많은 물을 담을 수는 없으므로 자네의 행동반경이 커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혀야 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와 발전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

셋째. 육군 항공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군과 비교될 수 없듯이 하는 일에 정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만고의 진리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어려운 때일수록 주인은 모든 지혜를 짜내 자신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로 노력하지만, 주인인 체하는 사람은 나약한 생각을 갖고 혼자 죽기보다는 함께 죽기를 원하지.

외국 18년동안 크게 성장치는 못했어도 사회나 업계에 기여한 바 컸다고 여겨지지만 이제는 성년에 가까운 나이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주변상황에 꼭 맞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거야.

「치유는 고통을 딛고서 가능하다」는 말대로 과정에는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경영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전체는 단결된 힘으로 뒷받침하여 모두가 하나될 때 외국 18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